

잇서다시인간스를참예치아니할지라더혈혈흔조식으로써량랑조씩부락하느니빈  
 되일죽녀이를위하야옥병동에십년과도흐이있더니맛당히연왕던하와량랑조들위  
 하야축원하야죽기전일로써은덕을갑스를가하느이다량랑이사례하더라연왕이선  
 량의부녀지정을퍼노라수일대승스에유하다가데삼일에도라을식국시창연하야셔  
 장을집고수리틀나와하직하며쇄루왕불가게틀이정근을경계하나부녀은정은승속  
 이일반이라상공과제랑조는금일빈도의구구호정을넋지말으쇼셔다시선랑의손을  
 잡고왕무위부조하야호향만복하라선랑이춤아찌나지못하야루쉬여우하거늘국시  
 표연이산문으로도라가니라초시연왕이일형을거느리고오류동에와비주로여흥을  
 돕고란성드러왕도라가는첩경은선선이지도하라란성이웃고반일만에집에도라와  
 량친씨문후하고귀련당에모히여유산하든말과선랑의부친맛남을고하니상하의치  
 해분분하더라익일연왕이중묘당에와빅금일천일과일봉서를다가보조국스에게보  
 내어대승스를중슈하라고선랑이또호일습의복과일합소찬을보내여효성을표하  
 니라차설연왕이후퇴흔지임의륙철년이라황태황대조를척봉하시고군신진하를받  
 으실시연왕이상표치하하니런지금포옥터를스송하샤우비하신후련하에쇼셔하샤  
 팔방다스를모화문무를보이라하사니엇지하신고하회를보라

데오십팔회

登龍門楊生聯璧

救楚王尙書出戰

룡문에올나양성이구술을련하교

초왕을구원하야상제전장에나가다

각설연왕의장자장성은년이십삼세오츠조경성은년이십이세라일일은연왕이귀련  
 당에와모친씨뵈은대대폐쇼왕아샤장성과경성이부거함을청하느네뜻은엇더하뇨  
 연왕왕양이어디가나잇가대대폐왕열남헌에간가하노라연왕이불너척왕너의아죽나  
 히어리고문후이미거하거늘망녕되이조진지심을두니엇지히연치아니리오박비물  
 너가후업을힘쓰라익일연왕이다시모친씨뵈오니대대폐쇼왕자일랑이부명을듯고경  
 성은유유하교장성은앙앙하니엇지우읍지아니리오연왕왕량의각각내모를뵈아경  
 아노유순하교장아는당돌하느이다대대폐쇼왕내년로하교랑의나히각각십여세되  
 였스니원되로관광을허함이도홀가하노라연왕이미쇼왕모친이또호장성의술중에  
 드신가하느이다대대폐쇼하더라연왕이그길로조운루에와장성을차즈니란성이쇼  
 왕장의연일밥을먹지아니하교첩드러부거하게하야달나하더니아샤춘취루에가니  
 이다연왕이미쇼왕속담에쳐첩을잘어든후조식을잘둔다함이올도다장성이종시만  
 장의풍치잇서호한하느이제어하거려올가하노라란성왕첩이드름에삽오세슈지로  
 수천리박게셔도부거를청하섯다니이제장성이공명을담함은만풍이아니라가풍인  
 가하느이다연왕이디쇼하교답지못하더라사야에연왕이춘취루에니르니대애미쇼  
 왕아샤장성이와부거함을청하기로년과어리고문후이미성함을말하죽양연되왕셔



에 감라느구세에상경이되었시니 사름이 저부지에잇고로유에달님이아니오문후으  
 로말호면쇼손이비록불민호오나아압해서조조건의찰보시를지어보시게호리이다  
 호기로로뷔그의상을괴득이녀여임의척락호앗스니경성과긋치가게호라연왕이호  
 일업서응명호고량으를치송호시유부인은으저를어루문지며헝리를넘려호야득실  
 을말함이업고란성은과구를일일이도검호야장성을경계할남이이일을경영아니호  
 면이의어니와임의경영호즉반드시호번들어일움이잇게호리니으저는삼가홀저어  
 다장성이공슈령명호고경성과긋치등정호야황성으로가니라시야에연왕이업남헌  
 에니르니유부인이초연이안저미첩간에무슴성각이잇는듯호거늘연왕알부인이으  
 저를보내고우량함이이긋호노부인알으저를성각함이아니라상공이집오세에등과  
 호샤삼십이못되야벼슬이왕후에밋쳤스니첩이호상성만함을근심함이잇거늘이제  
 장경량의또십이제유치로공명을호라조진지심이호중에긋득호니비록만류치못호  
 나엇지계구지심이업스리오연왕이키용샤례호고그길로바로조운루에오니라성이  
 선련량량을청호야옥역을불고거문고를긋방장조약호거늘연왕이호연왕란성이더  
 독지회를풍류로위로호는도다란성이랑연쇼왕첩이드름애그상이도호후비시여의  
 호느니남지십세지낸죽스방에뜻들은섯섯호일이라잠간떠남을엇지권련호리오으  
 저의금번지행에영화로도라움을짐작호는고로량량을청호야담쇼풍류로번화그상  
 을돕고저함이이다연왕이량량을보며왕란성의발일당돌함은남저로당치못호리

로다차설장경량의황성에드러가바로윤각로부중에너르니각로부위반김을이그지  
 못호야좌우로안치고어루문져알너를못본지불과칠팔년이라두각이참연호야장부  
 의괴상을일헛도다윤각로별로장성의손을잡고문왈너의모친이향원에도라가무엇  
 으로쇼견호다쇼장성알우호로부친을밋늘고아래로제모를거늘풍류로쇼견호느  
 이다각퇴키용단왈지의전의라이엇지아름다움이아니리오너의모친을비록성혹호  
 은정이업스나호상권련호모음이경성모에감호지아너너이제너를더함애너의모  
 친을본듯면형이방불호야반가움이극호나로뷔년로호야다시못볼가호노라다시경  
 성을보며왈네나히십이제라기간문호이엇지됨을내비록모르나금일관광은너모일  
 으도다경성알부친은불허호시나조뷔보내시더이다장성이랑연왕입쇼스군이또호  
 호문중일이오나엇지평성을구구히척상머리에세월을보내오리잇고각로단왈내호  
 란성이너저됨을차척호더니이제일기란성이또나도다수일후던지근정던에던좌호  
 사런하다스를문무로설과호실시장경량이장육에드러가게하에부복호야슈불딩  
 필호고문불가덤호나던지보시고대경청찬호샤장성을갑과에뻘으시고경성은을과  
 에뻘으심애던상의호뢰크게위여왕금일비록문과에참예호나문무쌍전호재잇거든  
 다시공시를잡으라호대장성이응성출반호나던지대경왕장성이불과십삼세슈저  
 로엇지또무기를겸호쇼집이천립호야보리라호시고보도궁과빅우전을주어압해서  
 쓰이실시근신상해죽목이용전호야구경호더니장성이청삼소매를거두치고옥환을



蘇光春  
雷文卿  
韓飛廉

내여보도궁을다려여흔변솨애흐르느살이별곳치드러가홍심을맞치니좌우의갈치  
 하는소리물살듯하는지라장성이련하야오시를물수관중하니런저대찬왈장성이문  
 유부풍하고무유모풍하니짐의보비라또무과데일인에뻘아문무신방을차례로입시  
 하시니문과룡방데일에양장성과데이에양경성과데삼에소광춘이니소유경의이들  
 이오무과호방데일에양장성과데이에되문경과데삼에한비림이니되문경은되던풍  
 의손적오한비림은한응문의아들이라황각되주왈한응문이바야흐로던원에방축하  
 야폴리지못하얏거늘기저엇지부거하리잇고던저또흔적당을위위하샤삭과하시고  
 다만문무오인을취하샤양장성을한림후스점우림랑을비하시고양경성과소광춘은  
 금란던후스를비하시고되문경은호분랑을비하샤치화일지와록포야디를주실시장  
 경은치화일지와어구마와보개를더주시고양후스형대를별로이답전에인견하샤왈  
 여부연왕은짐의동량이라네또흔황태자를도와저저손손이세록지신이된죽엇지아  
 름답지아니리오인하야래저를부르샤량후스를그치시며왈이네내주석지신이라  
 타일군신이짐의면계하는뜻을저버리지말라츠시황태회양장성의룡호방중첩함을  
 드르시고왕이느나의외손제라인견코저하노니황상씩고하하시니이진왕이취  
 성동갓쓸때에괘귀비의쌀초옥의흔인을장성과덩흙이라던저즉시장성을명하샤연  
 춘면에입시하시니던상던하에궁너비빈이들너서그르치며칭찬왈삼삼세남지엇지더  
 리속성하며이목안식이란성을후초하얏스니반갑도다일기로궁인이쇼왈너의다만

란성을보고연왕쇼시를못보도다내일즉황상을피셔연왕등과함을구경하니기시연  
 왕은섬오제라옥모풍치더와방불하더니발셔유조하야가풍을니으니유시부유시지  
 로다황회장성을인견하샤왈외조신하를곳하야볼배업스나너는장춧나의외손제될  
 썬아니라야모홍란성은로신이스량하야쌀곳치아느니근일던원에도라가범절이전  
 일과다름이업느나장성이그복주왈어미향산에안향하야질병이업스오니막비성은  
 이로서이다래회스좌하시고스찬후퇴출하니라츠일윤각되량후스를다리고부중에  
 나오니소부인이경성의손을잡고왈네어미멀니잇서금일경스를흔가지못보니흙식  
 로다각되왈너의형데근친이급하니밤비유가하고근친하는상소를너라량후식응  
 명하고유가홀셔도쳐마다택셔하는재분분하야장경은임의화진과결혼함을아는고  
 로감히의론치못하고경성의동혼하는소리비발치듯윤각로부중에미패져저와곳더  
 라선시화진은진왕인슈를받치고초왕을봉하야공주와삼귀비를거느리고초국으르  
 가니라차설량후식유가를못고상소슈유하야근친하라갈시던저리원풍악과황금천  
 일을주샤연슈를부조하시고락양령이하로디방관이길을다고쳐쳐영후하니구구의  
 장홀과거마의빛남을취아니칭찬하리오취성동에니름애래연왕과동중빈의을모  
 화춘회루에연석을비설하고대예량부삼랑을모화귀련당에서기드릴시량후식록포  
 야디로어구마를드고보개운번과리원풍악을압세여래야와부친씩되오니래예미쇼  
 하며량후스의손을잡고너당에드러와래예와제부제랑씩되오니래예량후스를좌우







초국스신이오자연왕을명쇼하시면즈연민심이소동할가하느이다던지유에미결하  
시니원리동홍은장안사람이라물달나고저기차기로상총을엇어권계점점쇼등을기  
우리니상즈대신으로감히거우지못하나다만연왕이입쇼홀가져허하더니추시를루  
알됨애상이인하야연왕을부르자아니시고다시초국동정을기드리시더니수일후초  
왕의상쇠또니르니상이놀나밤비보시니대강소본에왈

楚王臣某 遊於昇平 躑於武備 數日之內 犯境  
초왕신모는씨하되신이유어승평하고소어무비하와향일히적이수일지내에범경

五郡 形勢急 楚國殘兵 當 向日海賊 大軍發 救  
하야오군을쳐치고형세급하니초국잔병으로당치못할지라밤비대군을발하야구

援 賊情 探知 賊魁 耶單 糶略 非常 一  
원하쇼셔적정을대강탐지함애적괴의일홀은야선이니지혜도략이비상하고또일

簡道士 道號 青雲道人 道術 難測 手下 猛將 無數  
기도사잇스니도호는청운도인이라도술이난측하고슈하밍장이무수하다하더이

다  
던지보시고대경하샤윤각로를인견하시고즉일하쇼하샤연왕을명쇼하시다차설연  
왕이윤부인의말하든바자의공부를위하야상소코저하더니홀연던지쇼셔를느리  
시니연왕이북향스비하고열어보니황상의친필이라하섯스되

國家 大事 卿 當 使臣 登程 紅鸞城 借來  
국가에대사잇서경이아닌즉당치못할지라이스신과긋치등정하되홍란성과히리  
하라

연왕이보고란성을받비부르니란성이후스를다리고느리게늘연왕이쇼셔를보인대  
란성이무어량구에왈상공이장춧엇지코저하시느뇨연왕왈군명을불가지완이라말  
히코저하노라란성왈히임의저물고상의홀일이잇슬지니명일등정하심이도홀가하  
느이다연왕이올히녀어던스를익실에쉬게하고되당에드러가량친을되시고량부인  
제량과량후스로상의홀시연왕왈던지란성을히리하라하시니필연병혁지시잇습이  
라료량건대연곡지하에시급흔변은아니나만일변방에도적이잇서다시출전함을명  
하신즉식군지록하고의불감시라다만모년슬하에자로리축함이불회막대소이다  
태애추연왈로뷔금일심약하야너를오래떠남이어려오나만일출전지장에너른즉흔  
솔을다리고황성경데에가잇고저하노라란성왈상공의출전여부는비록예탁지못하  
나이번상경하신즉졸연이환향하실기약이업슬지니부득불흔솔이추후하야경데로  
모히심이도홀가하느이다태애그말을올히녀이더라란성이또고왈은즈의벼슬이우  
림랑에잇스니명일지형에등거함이엇더하리잇고연왕왈랑이임의동거흔즉랑의소  
솔을긋하야여기들배업스니다리고가라익일미명에연왕이은즈모즈를다리고일형  
이황성으로가니라추시던지연왕의입쇼홀을고되하시더니던지도라와연왕의입성  
함을고흔대상이대희하샤즉시인견하실시어답에느리샤집슈왈경을못본지임의철  
팔년이라또국가의유스함을인연하야창황이부르니참피하도다연왕이주왈신이불  
충하와오래쇼알치못하고국가의유스함을망연부지하엿습더니던은이망극하샤다



시명호하시니 그도보함을바름아지못호노이다상이이에초왕의전후상소를뢰이시  
 니연왕이보고심중에대경호야싱각호되남방오랑개장제어호기어렵고초국이막  
 강지국으로수일지간에오음을일헛스니그형제금호도다호고주왕초국은남방변경  
 지국이러그구원함을소루이못홀지니금일문무빅관을모화방략의론함을홀가  
 호는이다상이의운호시니원임자로황의병과연왕양창국과우승상윤형문과병부상  
 서소유경과례부상서황여옥과한림호스양장성과대장군되던공과호분랑되문경등  
 일반문무관원이일시입시호니던지하교왕남만이창렬호야초국을침범호니던도를  
 지원치못홀지라경등은각방략을말호라황각되주왕적은오랑개대국을규시호니  
 그죄큰지라발병문죄함을당연홀가호는이다유각되주왕방금조정에장지업스오니  
 복원성상은혁인함을유의호쇼셔연왕이주왕금일초국이비록무비를송상치못호오  
 나즈고로강국이오또호남방풍도에너을지니던병을긋호여만이말호야민심을소동  
 치말호시고정병오륙천그를거느려초왕과합세호야치게호쇼셔병부상서소유경이  
 주왕초왕의상죄니른지임의수일이라발군함이시급호니이다대장군되던공이주왕  
 폐해장슈를구호실진대연왕이아니면업슬가호는이다상이단왕연왕이향일남만부  
 호를평드호야오래도록슈고호얏스니엇지출전을말호리오소유경이강주왕성피지  
 당호시나남만의강성함이용장으로당치못홀지라연왕이비록득현지심이잇스나국  
 스를도라보샤다시출전함을명호시고또호란성후호흔탈을조셔호샤호가지가게호

쇼서되던공이출반주왕소상서의말이가위만전지계라만일연왕과호랑성이나가지  
 아난죽초국일방은폐하의싸이아닐가호는이다폐해량인을다쓰신죽신이비록호  
 나벽력취오히려잇스오니맛당히전부선봉이되야남만의머리를답전에박치리이다  
 설파에서리호흔탈이창대호치니러서거늘상이칭찬왕장지라되천공이여집이죽히  
 고침무우호리로다호시고연왕을보시더니호연반중일키쇼년이출반주왕신이비록  
 무용호오나아비를티신호야대군을거느려남만을평드호고도라오리이다모다보니  
 면여빅옥호고명모세미에괴상이당당호니이에한림호스양장성이라던지대경호샤  
 연왕드려왕경의아들이나히어리거늘이제출전함을원호니지즈는막여취라경의뜻  
 이엇드호노연왕이주왕미거호즈식이성주의장말호신은총을넘스와비록도보홀모  
 음이근절호오나빅면서성이오구상유취라삼군지장을맛기심은조명의용인호는도  
 리소루홀가호는이다언미팔에공거령이일장상소를받들어올니거늘상이문왕취상  
 소이노티왕란성후호흔탈의상죄니이다던지대희왕필연무슴묘계잇스리로다호시  
 고금란호스소광출드려늬으라호시니그소에왕

臣妾鸞城侯紅渾脫 百拜上書于皇帝陛下

蠢爾南蠻 敢拒大邦 聖

主 臣 新 諸 葛 亮 上 書 于 皇 帝 陛 下 盡 忠 圖 報 之 時 也 昔 唐 之 遜 公 宋 之 曹 彬

主 各 各 子 息 薦 舉 國 家 禦 侮 干 城 之 將 後 世 議 論

주의근심을더호오니정하신호의진충도보지시여라셔에당지덕공과송지조빈이  
 각각조식을천거호야국가의어모간성지장이되얏스오니후세의론이그르다아니



흠은그스시업습이라 臣妾 飄泊 賤蹤 聖主 恩寵 富貴極  
 상고영화죽호오니 비록루의 흠미와 돈어지위라도 엇지흔번출분을다하야 마혁과 榮華足 螻蟻之微 豚魚之愚 忠憤 外國  
 시홀뜻이업스리오마는 조딩에 비록사름이업스나 일기녀지두번출전흠은외국의 屍 朝廷 一箇女子 出戰  
 羞耻라 연고로 충심이 고인을 효추하야 일기장지를 폐하씨천거하야 거의 국스를그 忠心 古人 效則 一箇將材 陛下 薦舉 國事  
 릇치지아닐가하노니 폐하는 슈찰호쇼서 신조양장성이 비록년치하나 일죽제어미 兵書 奇正合變 糟粕 臣子 楊長星 年穉 古名將  
 를조차병서를비화기정합변의 조박을써듯고던문디리의 지조를정통하야 고명장 英雄度量 乃父 驍勇經綸 姜 當  
 에스양치아닐지라 그영웅도량은내부에는림이업고 효용경륜은첩으로당치못할 禽獸 砥礪之戀 姜 子息  
 가하노이다 비록금슈곳치미련흠도더독지련이잇는니 첩이엇지의 심된일로조식 自請 死地 天恩 罔極 涓埃之微  
 을조청하야스디에보내리잇고다만련은이망극흠애제목을디신하야 연애지미로 圖報 虎賁郎雷文卿 世世將種 臣妾 劍術 萬夫不  
 도보홀가하노이다 또호분랑되문경은세세장종으로 신첩에게검술을비화만부부 當之勇 陛下 長星 一臂之力  
 당지용이잇스오니 폐하쓰샤장성을돕게하시면일비지력이더될가하노이다  
 려지령필에대희하샤왕홍란성의 위군위국흠이스쇼지협과조어지정을도라보지아  
 니하니엇지그특지아나리오란성의조감이과인흠을짐이아는니엇지그아들을모르

고천거하리오즉시하교왕한림혹스양장성을병부시랑겸도원슈를비하야금포금갑  
 과박모왕일을주어삼일후발군하라하시니연왕이주왕신방무과한비렴이용됨이절  
 인하고병법이능통하오니복원폐하는도로복과하샤종군게하쇼서상왕집이또호그  
 효용흠을드렸스나기부한응문이구일적당인고로삭과하엿더니경이임의천거하니  
 특별이복과하야종랑장을비하야종군하게하라츠시문무빅관이바로퇴출홀시양원  
 슈샤은슈명하고부중으로도라오니제영장졸이임의문전에등디하고부원슈되문경  
 과종랑장한비렴이일시에너르니되문경은시년이십팔세오한비렴은이십세라원슈  
 한비렴으로형군스마를삼고하령왕명일형군하리니만일지체흔죽군들이잇스리라  
 한스매령퇴출하나라차설양원슈니당에드러가양친을피시고형군홀방략을의론  
 홀시연왕왕왕난요탁이나남방풍속이변셔무궁하니경이히디덕지말고던하성령이  
 도시적지라살육을적게하라원슈지비슈명하더라츠일란성이등잔을도도고독좌하  
 야병서를보더니연왕이와보고쇼왕랑이어린히를소루이던거하고무슴묘계를  
 르치라하노노란성왕의조의장략은첩도당치못홀지니 비록근심이업스오나다만쇼  
 년에그로군령이태강하야살육이만홀가하노이다야이오원슈바그로드러와모친씨  
 교왕쇼지명일발군코져하오니모친이엇지일언을그르침이업는니잇가란성이쇼왕  
 네종시내모를이녀조로아는니엇지그말을신령하리오원슈피석돈슈왕쇼지비록불  
 초하오나모친의명하심을불망하리이다란성이웃고연왕씨교왕금야월식이쇼하니



은조와 잠간 후원에 오르심이 엇더하시니 잇가 연왕이 미쇼하고 원슈와 원중에 니르니  
 츠시논 모춘이라 일류명월이 광치를 홀녀 만원화목의 그림저은영하늘관성이 시비  
 드러왈내쌍검을 가져오라 시비즉시 취봉루에 가쌍검을 가져오니 관성이 표연이 월하  
 에나서며 쌍검을 출추어 화림간에 수츠왕리하더니 홀연 간곳이 업고다 만흔줄기 흰무  
 지기 후원을 들너한기 습인하며 분분하니 무님이 어저러이 떠러지니 연왕이 원슈를 보  
 며왈여모의 검술이 오히려 늙앗다하더니 홀연 공중의 일기 부용검이니라 나무가지  
 를 처징연이 소리하며 가시우에 일쌍자괴늘나편편이니라 동으로 가니 또 부용검이 공  
 중에니라 동을 막는지라 그자괴셔호로 향하니 또 부용검이 셔홀막는지라 자괴늘나  
 소리하며 허여저동서남북으로 어드러이 놀더니 난티업는 부용검이 공중에 두하야  
 상하스방에 섬홀분분하니 그자괴갈티업서 숨히올며 연왕의 압히달녀들거늘 연왕이  
 웃고 소매를 들어자괴를 그리니 아이오란성이 공중으로느러서며 쇼왈남방도적을인  
 연하야 무단이 내원중자괴를 놀내엿도다 원슈드러왈네덕락업을 집어보라 원슈나  
 히집어보니 남시마다검흔이잇는지라 관성왈내용검흔는 법은 봉황탁실법이니 비록  
 빅만대군을 당하나 낮낮히머리를 버혀드림이 업스니 그는 처음 쓰는 법이 오돌재쓰는  
 칼은 지주박담법이니 비록 승련입디홀용링이잇스나 이칼에도 망치못홀지라 연이나  
 내평성에 검술을 밋고 위티홀을 범치아니하고 망녕도이 살인홀이 업슨상공의알으  
 시는바라네이제 무예병법이과인홀이 업시만일용링을 밋고 위디에드러가며 강링을

枳子城  
 漢水  
 方城山

힘써살륙을 일삼은즉바단병가대과라또흔신조충효지심이아닌가하노라 원슈저비  
 슈명하더라 데삼일양원쉬형군홀서던저남교에전송하샤친이되곡하샤왈곧아외는  
 장군이제지하야대공을세우고셀니도라오라원슈명등거하니부의엄정하고고각  
 이정제하거늘던저희동안식하샤연왕드러왈원슈의군들이경에게지아닐가하노  
 라연왕이부중에도라와왈금일황상을피셔장성의형군홀을볼애군령이숙연하야제  
 아비로당치못홀가하노라 관성이쇼왈상공이미양장성이모탁하야만장의풍되잇습  
 을흔탄하서더니금일이야제어미마르천공을알으시느니잇가연왕이대쇼하더라차  
 설초왕이두번상소후던병을고디하나쇼식이망연하더니일일은남군래쉬보하되금  
 야삼경에적병만여명이범경하야성지를위싸고그과제시급하다하니초왕이대경  
 하야제신을모화상의왈남군은초국중디라만일적희지못하면왕성이위티하리도다  
 하더니일대쉬또보왈적병이남군을함몰하고왕성으로향하느이다하거늘초왕이  
 실석왈안에는량장이업고박개는강적이잇스니일편고성을장춧엇지하리오제신이  
 고왈왕성은슈셔홀곳이아니라기조성을직희여대군을기드림이올을가하느이다하  
 니기조성은한슈우히방성산이잇스니전후좌우에기극이성림흔고로호왈기조성이  
 라성지비록견고하나디형이협축하고군량이업습애초왕이조저하더니야심후납합  
 소리진동하며적병이남문을치거늘초왕이대경하야창황중공슈와삼귀비와초육군  
 주로수천기를거느려부문을나와왕성을브리고기조성으로가니적병이왕성을쳐치



고군량보화를탈취하고다시기즈성을에위싸니초왕이친히시석을무릅쓰고군수를  
동독야삼일삼야를직현대적병이운대를무어성중을굽어보며량초업슴을보고덜  
등곳치에위싸형세점점위급흔지라초왕이양탄탄왈하늘이과인을이곳에서죽게하  
시도다하고친히물게올나성애나가흔번싸호고저하니초군주올며왕의소매를벗  
들고간왈던쇼에구병을청하얏스니부친은수일을더기드려보쇼셔초왕이을히녀  
다시성문을닫고직히더라차실양원쉬소과에추호를볼범하니거리거리속덕함이우  
되곳더라초군디경에니르매초락이쇼연하고계견이희쇼야적병의지나간자최완  
연흔지라원쉬비일병형야초왕성에니르니밤이임의삼스경이라월석이희미흔디  
성문이동기하고적병이둔취야야등해덤덤하거늘원쉬대군을물너수리밭계결진하  
고군교일인을불너분부왈네만히왕성근처에가무론남녀하고초군빅성을보거든  
불너오라아이오일키로응을불너오니원쉬문왈나는던쇼구병장이라초왕이지금이  
디게시노로응왈기즈성에게시나스면적병이에위싸통치못하니이다원쉬우문왈적  
병이얼마나되며적장은어디잇는노로응왈적병은부지괴만명이오적장은기즈성하  
에잇는이다원쉬로응을군중에두고부원쉬되문경을불너왈장군이수천기를거느려  
승야함미하고만히왕성하에니르러크게납합하고성을치되문에들지말고다만성  
외의척후하는적졸을무론다파하고잡아오라되문경이령령하고수천기를거느려왕  
성밖게니르러보니과연적병이방비함이업고성문을동기하야다만척후하는군식삼

삼오오이왕리하거늘되문경이크게납합하고다라드니적병이대경야일시에성문  
을닫고성상에올나활로쏘는지라되문경이거짓성을치는데다가척후하는적병수  
십을싱금하야도라오니원쉬다시하령왈초왕이기즈성에서위태하사다하니금야대  
군을합년하야몬저기즈성을취구하고명일초왕성을치리라하고짐짓싱금흔적병을  
노흐며헛북을치며방포하야대군이일시에납합하니던디진동하고산천이뒤집는지  
라적병이살대곳치도망하야기즈성에가적장에게명진동정을일일이고하니적장이  
대경야야죽시왕성중군수를불너내어스스로방비하는지라원쉬되문경에게닐너왈  
여쳐여쳐하라하고대군을합리하야월석을떠여바로초왕성남문을쳐치고드러가니  
성중에로약잔병수빅명파일키적장이잇는지라양원쉬즉시적장의머리를버혀복문  
에다니적진에서보라보고왕성을빼앗긴줄알고두려하더라원쉬다시군중에하령왈  
초왕성은국저근본이라임의도로응거하얏스니근심할배업는지라북기를기드려도  
전하리라하고삼군을분부하야성문을닫고갑옷을버스며안장을떠히고창검을누어  
방비함이업거늘로약만병빅여명이상의왈우리가때도망하리라하고만히월성하  
야본전에가적장에게고흔대적장이반신반의하야부산에올나성중을굽어보니월석  
이희미흔디과연등축이희쇼하고경덤소리단속하야일제잡든모양이라적장이대희  
왈명병이얼니구치하얏스니엇지되곤치아니리오이때를드성지들도로탈취하리라  
하고군수절반을난화반은기즈성에위잇게하고반은초왕성을철시성하에니르니



홀연등뒤에 방포소리나 며일원대장이 수천기를 거느리고 대도를 두르며 썩지저알대  
 명부원슈뢰문경이여기서기드린지오래니 적장은 내 칼을 밧으라 하고 동서출돌하거  
 늘적장이 창황하더니 또 왕성부문이 열니 며일원대장이 장창을 들고 소리를 벽력갓치  
 질니 왈대 명형군스마한 비렴이여기잇스니 적장은 닷지말라 량장이 전후협공하니 적  
 장이 불감디덕하코 물을 싸혀다라나는 지라 량장이 조차기조성아래니 르리식살홀시  
 량장이 도시쇼년에 그라 칼과 창을 번득여 각각 수천여금을 버헌후 창검을 지우고스면  
 을도라보니 일락서산하코 동방이 괴벽흔디 적병이 만산편야하야 종종 텨텨히 텨롱갓  
 처에 위싸는 지라 량장이 서로보며 왈우리예괴로 싸움을 탐하야 김히 드러왔스니 엇지  
 에 위싼것을 썩으리오하더니 홀연 양기적장이 일시에 창을 들고 물을 노화오며 웨여왈  
 명장은 임의런라디 망에 드렸스니 썰니 항복하라 한뢰 량장이 대쇼접전하야 십여합에  
 승취미분하니 대며적장은 적중대일명장이라 일원은 쇼을지렘목홀이니 큰도체를 쓰  
 고 일원은 취금강벽안협이니 대도를 쓰는디 쇼을지는 일골이 검고 신장이 십여척이오  
 힘이 밍슈를 잡고 취금강은 일골이 높고요 대십위오몸이 놀니여 평디에수십장을소스  
 니진것만부부당지용이라뢰한 량장이 진력하야 이인을대덕홀시 창검은공중에 번득  
 여벽실이분분하코 할성은런디를 뒤집어벽력이 나러나니 츠시 초왕이런병의니름을  
 보고 반괘양귀비와 초옥군주로기조성남문루에 올라 량진승패를 구명홀시 적장의귀  
 세홍녕함을보고 두려하야 초왕이 초옥군주를보며 왈우리부녀의명덕이이싸움에달

小尉遲帖  
木忽剛伯  
醜金剛伯  
顏帖

넛도다하니 엇지된고하회를보라

데오십구회

楊尙書擊毬斬董紅  
孫先生東床迎佳婚

양상계 경구하다가 동홍을 버히고  
손선성이 동상에 아릅다운스회를맛다

각설스장이 교봉하야 불분승취러니 홀연진상에 일성이 산악이 문혀지는듯하며 쇼을  
 지도체를더지고 물개뛰여느러적슈공권으로 삼십여합을싸흠애투귀싸여지고 갑옷  
 이버셔져서호로뛰며동으로달녀드니그세던디를흔들듯초국상해성상에서브라  
 보고막불실식하더니 홀연적진중류시드러와한스마의팔을맞치니 한스매일변싸호  
 며일변입으로살을싸히니 피홀녀싸에젓는지라되 문경이이거동을보고 취금강을브  
 리고 쇼을제에 깨다라든대 쇼을지우슈로드러오는 칼을 밧아 썩르치니되 문경이잠간  
 슈각이 황망하야 칼쓰는법이어즈러온지라 초왕이브라보고대경왈던장이적장을디  
 덕지 못하리니 엇지면도호리오하더니 괴귀비홀연반기는 빛이잇서부편을그르치며  
 왈대왕은더괴오논더장슈를보쇼셔반다시홍란성이로소이다삼귀비와군신이일시  
 에 용연하야브라보니일위쇼년장쉬홍포금갑으로부용검을들고나는다시달녀오며  
 별또흔눈과옥갓흔얼굴이과연홍란성이라 초왕이희동안석하야결연이니러나왈하  
 늘이과인을살니사도다만일란성이온즉쇼적을엇지근심하리오군취츠평과를홀녀이



옥히보더니 만히귀비씩고왈모천은다시보쇼셔 그장쉬외모는란성후와방불하  
 나얼골이크고허리길어남조의괴상이잇스니란성취아닌가하느이다초왕이다시보  
 고놀나와과연란성이아니라란성의아들장성이로다조정에비록장쉬업스나엇지어  
 린히로출전케하쇼하더라초시양원쉬한뢰랑장을적진에보내고성상에올나동정  
 을보더니량장의형제급함을보고천히와바로진을출몰하며크게왜여왕랑장은싸흠  
 을멈추고나의용검하느법을보라하며양수의부용검을느는다시출추어삼스빅회를  
 돌더니홀연우슈부용검이공중을향하야늘며취금강의압히드러가니금강이몸을중  
 던에소사칼을받고저홀대원쉬또좌수의부용검을공중에더지더니금강의머리마전  
 에떨러지니라쇼울지한스마를버리고바로원수에게달녀드니원쉬칼을거두고물  
 을돌녀다라나니쇼울지불승분분하야조차가며우뢰곳치소리질녀왕명장은맞지말  
 라내이제홀번싸취금강의원수를잡흐리라원쉬도라보며쇼알필위남방에성장하  
 야런명을모르고추홀용땡을포장하니내즈비지심으로성명을용디하느니썰니항복  
 하라언미필에흐르는살이드러와쇼울지의명문을맞쳐번신락마하야성금하니적진  
 이요란홀지라한뢰랑장이승승총돌하야죽임이여산하고피홀녀여히하니빅만대군  
 이절반이나죽엇더라초시초왕이성상에서보보고괴귀비드러왕랑성이비록속성  
 하나용땡대락이더러홀줄몰나더니내모지풍이잇도다바야흐로성문을동기하고슈  
 하천병수천기를거느리고성에느러원쉬를영접하니원쉬마상에서흠신장을왈개쥬

지스는불비라대왕은그거만함을용셔하쇼셔초왕이또홀답음왕원슈의미우를못본  
 지팔구년에청춘공명이문무를겸전하니금일상봉은실로의외라적병이임의퇴하얏  
 스니잠간성에드러감이도홀가하노라원쉬우락하고한뢰랑장드러왕공등은왕성에  
 드러가군중을진딩하고쇼울지를든다가두어두라하고초왕을피셔괴조성에니르  
 러초왕이자리를난호와빈슈지례를베푸니원쉬스양함을마지아니귀늘초왕이귀용  
 사왕과인이덕박하야종사의위티힘이더럭거늘원쉬황명을밧들어성령을도탄중  
 에건지고초국을반석곳치만드니이는다성쥬의은덕이오원슈의공이라파인이그도  
 보홀바를아지못하노라원쉬왕금일과적함은던하의홍복이라쇼지엇지승당하리잇  
 고초왕이미쇼하며원슈의손을잡고왈존옹이던원의청복을누리시거늘과인의불민  
 홀연고로다시세로에나시니비록참피하나존옹이아직년부력강하시고군이이제또  
 홀대공을일워공명이현혁하야국가에유광하니죽히치하홀배로대도적의여당이불  
 쇼하니엇지코저하느노원쉬왕고담에풀을버히면썩리를싸히고사름을죽이면피를  
 보라하엿스니만일적피를잡지못홀죽도라가지아니하라하나이다초왕이귀용칭사  
 하되덕으로항복밧고힘으로싸호지아닐지라제갈무후의철종칠금을효축하야금일  
 너를방송하느니썰니도라가적장드러닐능히다사싸홀진대군스를슈습하야오게  
 하라민거슬풀어쥬육을더접하니쇼울지사레하고가거늘제장이간왈쇼울지느법곳



흔장쉬라이제도노흐시니엇지법을노와산으로보낸과다르리오원쉬쇼왈남방이  
 왕해말어위력으로항복받지못할지라은위로감화코져하노니공등은다만동심노력  
 하라제장이무무무어하더라차설적장야선이패군을슈습하야청운도인과던병덕  
 할방략을의론하더니쇼울지도라움을보고대희하야익일초왕성하에진을치고다시  
 도전하니양원쉬한뢰랑장을지휘하야왈내드르니적진에일키도시있다하니금일반  
 드시오술을힝할지라무곡진을쳐방비하고동정을보아응변하리라하더니적진중에  
 북소리진동하며일지근매청괴청갑으로삼삼오오이나오며일량쇼거에일위도인이  
 단좌하얏스니산건도복으로얼골이빅옥긋고눈섭이푸르러진제인물이아니라원쉬  
 심중에의아왈엇더하산인이더런풍골로그릇도적을조차왔는고하더니그도인이진  
 언을념하며칼을들어던디스방을그르치니푸른구름이러나며신장귀줄이만산편  
 야하야오거늘원쉬진물을닷고반일을나지아니하니도인이신장을호령하야스면으  
 로치되파치못하니도인이대경하야신장을거두고다시작법고져하더니양원쉬진상  
 에서웨여왈도인은요술을뚝치고내말을드르라도인이싱각하되명원슈의진세를봄  
 애시속장쉬아니라이제서로슈작함을인연하야사로잡으리라하고수리를모라진전  
 에나서니원쉬또하홍포금갑으로쌍검을들고괴문아래서쑥져왈내도술을밧고던  
 명을거역하니나는정도로싸호고게게로각승치아니하리니네만일지조를밧거든내  
 쌍검을막을쇼나도인이응락하거늘원쉬이에후원월하의모친쓰든검술을의방하야

쌍검을공중에다지니경각간에천빅부용검이적진을들너링기습인흐지라도인이대  
 경하야크게소리왈원슈는검술을잠간머물고놈흔일함을뚝고져하노라원쉬왈네다  
 만도술을다하야승부를결단할지라일홍은아라무엇하리오도인이수리에느려몸을  
 변하야일기도동모양으로바로원슈압히나아와왈스형이엇지나를모르시느뇨원쉬  
 그간계를의심하야안검대매왈야마도적이엇지란언을하느뇨그도인이다시보고당  
 황왈원쉬엇지빅운도스의데즈홍랑이아니시니잇가원쉬그말을슈상이듯고왈도동  
 은엇더하사람이뇨도인왈나는빅운도스압히잇든청운이라이제원슈의얼골과검술  
 이우리스형홍랑과흡스하니존명을뚝고져하느이다원쉬바야흐로그말이묘릭이잇  
 슴을알고기용왈나는대명대원슈양장성이라일즉빅운도스의고명을드렸더니도동  
 이그데즈로엇지도적을도아련하를요란케하느뇨도인이슈괴왈내홍형과빅운동에  
 도스를섬기더니홍형이만왕나락을구원하랴출산후도시또흔셔역으르가심어나는  
 산중에처약을일삼아있다가적장야선이지성근청하기민면하야왔스나긋하여즐겨  
 흠이아니라이제도로산중에드러가자하거니와아저못게라원슈의얼골과검술이엇  
 지우리스형과긋흐시뇨원쉬효즈지심으로모친의궁도지교를맛남애엇지감동치아  
 니리오이에쥬용샤왈후성이일즉드름에모친이초년표박하야빅운도스를스데로섬  
 것스니선성은즉모친의고인이라잠간좌를명하쇼셔도인이반겨원슈의손을잡고함  
 루왈우리스형이산중에비록고성하시나원슈긋흔지즈를두엇스니만복이창대할지



라다시뵈을과약이업스니엇지초창치아니리오원쉬왈선성의말이그러할진대군중  
 에머므샤도적평등할방략을지도호쇼셔도인이쇼왈사를위하야왔다가그사람을  
 해함은의아니라나논이길로도라가는니원슈의장략으로엇지쇼적을근심호리오대  
 공을세워도라가현당씩뵈옵거든구일빅운도스상전에차다리던청운을보았노라호  
 쇼셔설파에몸을공중애소사청학이되야부지거체라원쉬망연즈실호야창연불이호  
 다가인호야무곡진을변호야괴정팔문을치고회한량장으로도전호니야선이마저  
 싸화수합에량장이거짓패호야다라나거늘야선은본디성품이급호고썩업시용뵈호  
 지라량장을조차바로명진중에들매원쉬문을닷고스문을여니야선이동셔충돌호  
 야버서나지못호지라차시쇼울지야선의급함을보고구코져호야도체를들고명진을  
 충돌호니스면이덜호고오족일문이열넛거늘쇼울지대함일성에돌입호니그도스  
 문이라검국이성림호고시척이여우호야길이업는지라비로소대경호야돌쳐나오고  
 저호더니홀연튼물이할정에싸져성금호배되니야선이더욱불승분노호야동을침애  
 동문이열니며그문을난죽다시호문이잇고복을침애복문이열니며그문을난죽다시  
 호문이잇서종일륙십스문을출입호나진박게나지못호니야선이분괴충던호야범호  
 처뛰노더니홀연중앙일문이열니며양원쉬놈히안져호령왈야선아네이제도항복지  
 아니호랴야선이대노호야그문을돌입고져호대양원쉬웃고기를쓰니문이닷치고검  
 국이서리호거늘야선이다른길을찾더니또호문이열니며양원쉬놈히안져호령왈야

선아네이제도항복지아니호랴야선이또돌입고져호죽문이닷치고검국이성림이라  
 여츠지삼애야선이입의십여창을맞고스스로나지못호줄알고소리를지르고물게썩  
 러져목쩍너죽으니원쉬그머리를베여물게들고대군을모라적진을엄살호니도봉와  
 히호야적시여산이라항자는불살호리라호니이에적병이일시투항호니원쉬대군을  
 거두어본진에도라와쇼울지를장전에불너분부왈야선이비록죽었스나잔병이오히  
 러만호니네다시싸호쇼나쇼울지고두샤왈쇼성은지성지명이라원슈장전에의탁호  
 야전마지성을본밧고져호나이다호고손가락을세물어밍세호니원쉬그뺨을괴득이  
 녀여슈습호고적병의항자를불너왈너의다명나라빅성이라야선의썩에싸져스죄에  
 범호얏스나이제도평민이되었스니도라가농스를힘쓰고반심을두지말라모다고  
 두샤죄호야혹출추며혹눈물흘녀불승감격호고일시에각기도라가니라원슈남방을  
 평등함애개가브르고초왕성에드러와일변첩셔를닥가조당에보호니츠시초왕과  
 궤귀비원슈의립공함을깃거호야더욱공경호며킵레로디첩호니원슈짐짓스양치아  
 니호고동상교셔의교만호티도로공류성석에딜탕함을방호이호더라일일은원슈성  
 각호되내우연이왕스를인연호야츠처에왔다가빅년가인을지척에두고못보고도라  
 간죽엇지남호의과상이리오호고일계를내여궤귀비썩뵈옵기를청호야왈궤비향일  
 연부에오샤나를즈셔지례로보고호호호호천과지그지위라금일뵈옵이그르지아닐  
 가호호이다궤비흔연허락호니초옥군쥬족용산왈양원쉬향일은삼척히데라보심이



晉、鮑、秦

娘子軍

大宛

무괴하니 이제는 장성하야 임의거관하엿거늘 명석업시 보심이 불가하니 다 귀비쇼  
 왕내란성과형데지의잇슬뿐아니라 타일교서의신근호정을엇지아니 드르리오인하  
 야원슈를너던으로청하야 불씨레필에귀비왕청춘지년에대공을세우시니치하하노  
 라원슈샤알이논다황상과초왕던하의홍복이라쇼지무슴공이잇스리잇고귀비우왕  
 란성이경데에도라오시나만리관산에얼골을디홀피약이업서미양초창하더니금일  
 옥모를디하니란성을디홀듯반가움을이그지못하느이다원슈왕남은형지본디무명  
 하나만리타국에이러하게되음은그필치못할바라장춧쇼셔를기드러박비도라가고  
 저하논고로잠잔청알하엿느이다귀비랑쇼왕내란성과관포지피잇고다시진진지  
 의를겸하엿스니금일이긋차차즘이더욱다정하도다이에비반을나와천이잔을들어  
 권하니원슈연음수비에홍훈이만면하고담회성풍하니귀비스랑하논모음을이그지  
 못하더니원슈미쇼왕만성이풍류지심으로수일외관에무료호지라드름애초국계집  
 이왕왕궁마지저잇다하니궁중에필연랑조군이잇슬지라명일원중에궁녀지조를호  
 번구경코저하느이다귀비쇼왕내또호히거슬도화하야궁인을긋쳐능히활쏘고물  
 달니는재벽여명이라원슈보시고저하실진대무엇이어려오리오익일피귀비궁녀수  
 빅인을릭하야용복을긋초고후원에연무홀서양원슈또호홍포성관으로궁시를차고  
 대완청총마를타고연무장에나가니초국궁녀등이원슈의무예정륜호출을알고단  
 장을정히하며복식을선명이하고지조를다하야우렬을다도니분분호갈날은봄눈이

령룡호고흐르논살은재변별이섬홀하야취교화전은마전에셔러지고록의홍상은일  
 식이쇼요하니원슈칭찬불이하더라홀연일쌍청작이논라연무장을지나가거늘모든  
 궁내다도와쏘되맞치지못하니조연장상이요란호지라차시초국군쥬루상에쥬렴을  
 느리고그안에서구경홀서양원슈머지아니케잇슴을실케녀여갑히안졌다니양원슈  
 겹눈으로짐작하고싱각왕궁중에긋하어나를못불재업슬지니내호번초옥을놀내여  
 그창황호거동을보리라하호거리의살을빠허가치를쏘는데호고루상을향하야호번  
 시위를노으니번긋긋호살이발갈구리를맞쳐쳐여지며쥬렴이셔러지니군쥬밋쳐피  
 치못하야양원슈추슈량안으로릭릭히쏘아보니선연호리도논반륜명월이운쇼에드  
 러나고총망호긋식은느는기력이바람에놀내는듯슈괴홀을이그지못하야몸을돌쳐  
 드러가니양원슈미쇼하고곽귀비씨샤왕만성이궁저업서그릇쥬구를써치니무안하  
 도소이다귀비대쇼왕고인이병풍의그린공작을쏘아빅년가연을딩하엿느니이제렴  
 구마치신거시또호긋이호일이라원슈의궁법이이긋치신긋하니호번구경코저하느  
 이다원슈연음락왕만성이만일내기아닌쥬쏘지아닐지니빅보박게버들납을달고  
 쏘아맞치지못호쥬만성의탄말이대완국소산이라같이천금이라귀비씨드릴거시오  
 만일맛친쥬무엇으로주시라하느니잇가귀비쇼왕초국이비록잔난하나원슈의소  
 청대로하리이다원슈왕다른것말고치단천팔을주쇼셔귀비허락하니원슈궁녀로빅  
 보박게적은창긋히버들납을달고동궁에대우전을메여호살에버들납을맞쳐셔러치



니만장공녀와좌우제인이일시에갈치하는지라원슈체단을지축하니귀비즉시문금  
 천필을가져니르거늘원슈웃고공녀를일일이분급후인하야풍류를알외며비반이  
 랑자하야일모후과하니라츠시던지양원슈를보내시고첩서를날로고되하시더니초  
 시니르러원슈의상소를받친대던지랄필에대회하샤빅관치하를받으시고연왕을인  
 견하샤집슈왕경의부지런하야국가에훈되잇스니고금의희한일이라장성은병부  
 상서를결하고경과란성후는식읍오천호를더하노라연왕이지삼상소로스면하되불  
 령하시더라츠시황태휘장성의승전함을드르시고황상씩고왕장성이임의초국에립  
 공하고초옥의나히십삼세라인하야성례후회군함이도홀가하노라상이응명하시고  
 연왕으로순무스를비하야초국에가초왕과빅성을위로하고장성을성호케하라하시  
 니츠시연왕이귀가하야랑친씩고하고란성드러왕황상이태후의의향을받드샤장성  
 의혼스를지축하시고성훈후회군케하시니감히스양치못하얏스나미비흔배만흐니  
 엇지하리오란성이쇼왕금일지스는첩이임의집작흔바라약간유의함이잇스니념려  
 마르쇼셔연왕이대회하야수일후등정홀시던지금빅체단을무수이부조하시니라차  
 설양원슈대군을초국에류하고쇼셔를고되하더니연왕이순무스를하야음을듯고초  
 왕과성외에나와마져군중에연석을비설하고황칙을받조와군민을위로하후연왕이  
 초왕씩고왕의조의년이불과십스세라초흔이시급할배업스나황명이정중하시니속  
 히히례하야대군을오래서설케말으쇼셔초왕왕과인이병화를새로겨거정돈치못하

얏스니불가불수십일이될가하노이다즉일일관으로립일하야십여일이격흔지라초  
 왕이귀비드려혼구를츠리라고날마다연왕과홍금의론하며왕우리조개봉셔하  
 여진후금일맛나니넷일이꿈이오예셔맛남이의외라엇지반갑지아니리오하더라길  
 일을당함에원슈홍포옥되로목안을안고군주는봉관슈삼으로초례를히홀시위의례  
 례하야진짓군조속네오영웅가인이라삼일화축을맛고친영지형을츠릴쇼초왕이녀  
 으를다리고입조코저하니왕비와삼귀비군주의손을잡고초왕알녀조유형이원부모  
 형데라엇지하리오마는네군중에미거이자라구별너축에비힘이업고효양구고와례  
 절이싱소하니다내모의허를이라너은구가에가유순함을힘쓰고무위부조하고계  
 지경지하라군쥬또흔모친품에업드러루슈영하야갈뜻이업는지라초왕이형장을  
 지축하니군쥬칠향차에오름애공녀군속이십리의에전송하고도라오더라원슈대군  
 을거느려선형하고초연양왕은군쥬를다리고후형하니거기치중이십리에련속하야  
 구경하는재길이에엿더라십여일에황성에니르러초왕은군쥬와바로대너로드러가  
 고연왕은몬져복명하니던지법가를조와십리의에나가헌괘지례를받으실시츠시  
 양원슈대군을교외에류진하고개가를알외니고각은원던하고정고는폐공이라군례  
 를조초와야선의슈급을받들어단상에드리니던지흠신위로하시고삼군을호케후  
 환공하시거늘원슈다시파전악으로대군을노흔후부중에도라오니츠시란성이원슈  
 의립공하야도라음을듯고희불조승하야슈리를쓰고중문에서고되하노라괴석이



謝安

던도하거늘연왕이쇼왕랑의금일깃분이전일나의승전흠과엇다하노란성이쇼이더  
 알상공의립공하심은즉천첩의립공흠이라도로허깃분을세듯지못하더니금일지스  
 는별로귀특하야샤안의나무신급쳐여지든모음이잇는이다연왕이대쇼하더라이  
 오원슈니르러량당씩되온후모친을피셔승전하든말을일일이고하니란성이흔연왕  
 네이번득첩흠은짐작하얏스나종시쇼년에괴로무기를밧고경술이싸흠은불가하니  
 츠후는삼가홀지어다원슈또청운도인의말을고흔대란성이차경차쇼왕청운이본디  
 요망하야잡술을도하하더니구습을곳치지못하얏다이익일던지백관을모화론공형  
 상하실셔도원슈양장성은병부상셔를비하야식읍만호를주시고부원슈되문경은좌  
 장군을비하야식읍첼천호를주시고형군스마한비렴은병부원외랑을비하야식읍오  
 천호를주시고이하제장은공덕으로상스하신후하교왕초옥군주는짐의질네라금일천  
 영지형에가인지례로짐이연부에천림하야불거시니허방은지실하라츠시초왕이겔  
 다투에드러가니대회반기시고군주를보시며더욱반기며왕너를오류제에보앗더니그  
 동안업연장대하얏다하시고초왕을비하야왕너는무양하노초왕왕아죽큰병은  
 업는이다차설윤각되연왕드러왕황상이귀부에천림하신후법절의군식흠이만홀지  
 라현셔는퇴쇼흠이을홀가하노라연왕이을히녀여즉시퇴출하니상이쇼왕경이금일  
 대빈을맛나디접지절이군속홀듯하나가인일석에소스날반을허물치아나리니부즐  
 업시폐되야불속지각으로불안케말나연왕이황공돈슈하코부중에도라와량천씩고

하코란성드러왕던지창졸에니르시니공궐지절에류의흠이업슬지라금일지스는랑  
 의쥬장홀바니알아하라란성이쇼왕첩이금일신부덕으로식모레동을츠릴가하얏더  
 니상공이또못하게하시도다하고선련양랑을청하야왕우리삼인이고락을츠치홀지  
 라랑등의즈부보는날에또흔슈고를스양치아니하리니금일당구의천집흠을괴로이  
 말라하며의상을것고천히하당하야핑임을보습히며할담을맛초와여러시비와슈고  
 를츠치하며담쇼로동독하니그민첩흠은바람고그정제흠은터럭뚫고호여경각간  
 에슈륙이구비하고비반이정제하야미흠흠이업는지라제비상고차탄왕우리란성은  
 다만가인중영웅으로알앗더니금일봄에가위무쳐부당이로다아이오문의들네며던  
 지초왕과군주를거느려니르시니만도백관이화복을맛초고거매운둔하코의장이문  
 전에드득하며부중이물들듯하디라니당에포진을성설하고래여청포오사로남향쥬  
 벽하며대메는난모슈군으로동셔분좌하코연왕은홍포옥티로셔향시좌하며윤황양  
 부인은화관슈요로동향시좌하코란성은첼보슈계외록라원삼으로선련양랑과양부  
 인을조차안고상셔는즈비상홀로후스와인성을거느려연왕것히시립하야좌석이질  
 질하코위의속속하야단상상봉이삿기를거느려쌍쌍이느린듯벽히명쥬광치를도하  
 야낫낫히비최는듯쥬취홍장이조안령릉하코금의라군이만당회황하야화괴석식이  
 천고의드문좌석이라이이오신뵈봉련에느려금루슈요에만화장복을넘고첼보왜타  
 게에명월패를드리워초국궁녀십여인과연부시비수십명이각각응장성식으로전츠



花月亭

宋太祖 趙普

후옹하야 당에 오르니 요도흔티도와 선연 혼용지를 휘아니 칭찬하리 오래야 때 때씩  
 팔비 지례를 못고 연왕과 량부인씩 팔비 지례를 흥훈 후란 성씩스 비하고 양량에게 지비  
 하니 량량이 몸을 내려 답비하느니라 후스외인 성형데 각각 레수를 파흔 후취봉루넵히  
 화월당으로 신부처소를 당하야 쉬게하니라 츠시런지의 당에던 화하시고 연왕부즈를  
 명하샤니 당에드러가 신부 지례를 밧고나오라 하시니 연왕부 지즉시 흥례하고 의당에  
 니름에상이 쇼왈금일짐이 부중에옴은 전허란 성후를 보고치하코져함이니 밧비부르  
 라란성이 죽시나와 당하에비알코져하대상이그옴을명하시고 초왕드려왈석에송  
 대조는 승상 조보의 집에자로미 흥훈애 조보의 체천히 흥비하니래죄형수로 불너가인  
 곳치내니이느천고미사라이제짐이송대조의덕은부족하나란성의 현속훈은조보  
 처에지낼지니짐이데수로디점하리라하시고란성드려왈수씨위국하야 현조를천거  
 하니금일짐의형데이곳치답락훈은수씨의공이라그갑을바를아지못하거니와금일  
 짐이불속지기로참석훈은수씨의즈부보는일비하주를도식고져함이니혹장대치  
 아닐쇼나란성이황괴하야감히답지못하거늘초왕이또훈신샤왈란성을본지임의철  
 팔년이라 초옥을안고슈작할제어제곳다니광음이홀훈하야요조시를誦흐니 량가의  
 신의를저버리지아니니깃부나천석이비훈이업서귀문에이우훈이만홀지니비라건  
 대설곳치곳곳그미거훈을용셔하쇼셔란성이국축슈명홀씩씩일너라이우고비반  
 을나오니산진히착이변화정치하야만당빅료를다각접디하고궁익하속도났났히

공제하되부중이적연하야분요훈이업거늘런저단왈이느반드시란성의간판이라비  
 록창졸에당하나약속이엄명하고경륜이정제하니이또훈용병하든법이로다런저중  
 일환락하샤연왕부즈와군신일석에가인곳치즐기시고일모후환궁하시니연왕이중  
 빈을보내고령슈각에니른대대량부삼랑과군주들다리고어루문지며스랑훈을말  
 지아니하거늘연왕이모천씩고왈금일장성의훈스느입의지내엿스나경의또년과장  
 성하니맛당히당훈할곳이업스니그장관심이되느이다윤부인왈일전로천이말습하  
 시되소상셔의딸이년금십일세라저덕이과인하나소상세한미훈집을찾고져하야경  
 의와성훈함을즐거아니하느다하니상공은중용슈작하야보쇼셔연왕이대희왈소상셔  
 의소괴잇슴을몰났더니부인이일죽보시니잇가윤부인왈수초보앗스니비록그비훈  
 을모르나그의모는절등하더이다연왕이덤두하고나가거늘윤부인이웃고란성드려  
 왈랑은상스하느안목이잇서군주를호번보고더곳치현속훈을알앗스나나는땃안이  
 라소쇼셔를비록여러번보앗스나엇지밋으리오란성이웃고경성을보며왈혹시소쇼  
 저의현부를알고져할진대나를달녀소부에보내여선분죽천무일실하리라장성이  
 우으며눈을흘녀군주를보며왈모천이비록션을잘보시나쇼조의슈단을당치못하실  
 가하느이다선련량랑이그곡절을무른대장성이가쇼왈세간의선보는재선문을못  
 는고로다만슈식함을보고더의던진을못보느니쇼조는초국에가여츠여츠하느이다  
 하고인하야가치를쏘다가주렴셔러치던말과군주의놀나창황이피하든거동을그린



듯이 말흔대일채대쇼절도하고군주는홍훈이만면하야불승슈괴하더라익일소상세  
 연부에오니연왕이레필에쇼왕봉우지되었슨지오래나사람이벧을사꿈애그안을사  
 괴지아니하고다만그것을사관죽엇더하리오상세왕그르니이다연왕알연주소대를  
 형이것흐로티접하니그무슴도리노상세악연왕엇지닐은말슴이니잇고연왕알쇼데  
 드름애형이쇼괴잇고경이년과장성왕앗스나데의부귀를혐의하야허훈코져아니훈  
 다하니대범부귀궁달은사람의것일이오지취흥금은사람의속정이라쇼데를것흐로  
 소티힘이아니나소상세쇼왕만성이엇지상공을부귀로소티하리오다만너의비힘이  
 업서귀문의즈부지임을승당치못할가힘이니이다연왕이키용답왈내또흔여랍포의  
 로분외의공명이극힘애홍상계구지심이잇서오즈의흔스를한미흔집에덩코져하더  
 니우연이초왕과덩혼하니또흔런덩인연이라인력으로못할바니형은고집지말고돈  
 으와성흔힘이엇더하노쇼상세왕상공이임의말슴하시니제디벌과교분이흔가지니  
 스양할곳이업는지라엇지다른말슴이잇스리오연왕이대희하야담죄새로이다정하  
 더니좌위보하되초왕이오신다하거늘연왕이마저레필에소상서는괴죄하얏더니초  
 왕이문왕문외에거마와종재잇기로부중에대빈이오신가하얏더니엇지적연하노연  
 왕이쇼왕리부상셔소유경이왔다가대왕이오심을보고괴셔하얏느이다초왕이소상  
 셔를청하니소상세나와샤레흔대초왕이공경답레왈과인이멀니잇서쇼덩고인을겨  
 절흔때만흐나상공의성명을우뢰코치듯고식형지원이근절하더니이제엇지피하셔

니잇고상세흔신왕만성이불민하와대왕씩뵈옵지못하고로감히충당치못함이라작  
 일일길신랑하야군주의천령지례를슈성하시니치하하느이다연왕이초왕을보며왕  
 금일만성이데이오흔스를소상셔와덩하얏스나대왕이또흔중미하실가하느이다초  
 왕이쇼왕오날만드시비쥬잇슬지라과인이잘왓도다하고양상셔형대를부르니상셔  
 와혹시나와시립하거늘초왕이연왕드려왕형의삼즈를다또부르라아시오인성괴성  
 석성이츠레로나오니인성은십세오괴성은구세오석성은칠세라초왕이각각속시하  
 고칭찬왕무비괴즈봉취오지란옥슈라형가후복이더욱창성하러나와그중에인성의  
 업연흔거동이타일크게성취힘이잇스리라하더라수월후초왕이환국하라홀시연부  
 에니르러연왕과종용슈작하더니초왕이근심왕과인이천왕지렬에잇서곳하야쇼덩  
 일을참섭지아님은형의아는바라금일입쇼하야수월을궁중에류하야보니쇼덩괴상  
 이너모히이하야국식한심흔중던전어스동홍이본디천인으로잡기를승상하야근일  
 후원에격구장을비설하고궁중에효용한자오륙십인을짜혀일흔을겨구교위라하야  
 민간에회형하고동홍의교만방즈힘이날로더하니후일근심이불쇼흔지라과인이일  
 즉승간하야풍잔하되황상이불령하시고일시후원에우연흔일로디답하시니형은위  
 국하야방략을싱각하라연왕이탄왕만성이또흔드릿스나금일도적을새로평덩하고  
 쇼덩에즈연다스하야밋쳐간치못함이라장춧상소코져하노라초왕이침음왕항일로  
 관은불과잔당이오금일동홍은음흔담대하니형은십분삼가힘이도홀가하느이다연



왕이덤두무언하더라익일초왕이발헛을시너이를보고상별후가니라연왕부지전송  
 하고도라오더니심즈가에니르러일위지상이덜련총을두고추송이길을덥혀오거늘  
 연부하례벽제하되그지상이피치아니하고물을달녀넙흐로지내려흔대연부부감이  
 대대왈조영례흥이저러치못할지니하례를잡아오라흔대그지상이비로소하마양로  
 하거늘연왕이지나오며보니이에동홍이라심중에흥히하나적은허물을장대코저아  
 니하야무무히도라왔더니익일연왕부지조반에나아가라티루원에안젼슬시동홍이  
 늦게야드러오거늘만조벽관이분분이압히가다도와인스하니동어시덤두홀뿐이라  
 바로연왕압의합문으로직입하니연왕이원리를불너왕합문을열지안코대신이밧게  
 안젼거늘벽관중문져드러가늘재잇스니그무슴연괴노원리왈조전으로동어스일인  
 은합문출입에구애함이업나이다연왕이노즐왕합문은대니중디라그심업함이군중  
 파코흐니만일란입하는관원이잇서금지못흔죽군를을쓰리라합문진회군시첩하야  
 동어스를막으니동홍이드러가자못하고양왕불락하더라이오조반에양상세나아  
 오니상이양상셔를별로말류하샤왕금일왕대회경을보고저하시나가지말라양상  
 세응명하고연왕우죽시되출하엿더니상이양상셔를편던으로인견하실시오직오륙  
 인환사와궁녀십여인이동어스와좌우에되섯느니라상이양상셔의손을잡고쇼왕왕  
 태회후원에놀으시라하샤경을만류하라하시니일모후출거하라슈유에쥬찬을내여  
 먹이시고소매를잇그리후원에가시니일좌던각이흥창굉결흔디그압히마당을닥가

동서수벽외오남북이천여비라상이쇼왕이논짐의쇼일하는곳이라넛적당조때분허  
 격구하는법이잇서지상지인이고혹성풍하니비록성인군주의일삼을배아나나또흔  
 궁중무과의장습하는곳이라던전어스동홍이장슈단이잇는고로짐이더브로각승  
 하되미양이과지못하니경의무예절문음을드릿심애흔번구경코저하노라양상세침  
 음하다가주왕신이불민하와일죽격구하는법을비오지못하얏스오니금일즐기심을  
 돕지못할가하는이다상이쇼왕이또흔창검쓰는법과일반이라짐이천히시험하리니  
 경이흔번분죽비호리라하시고동홍을부르시니홍이응복을회미이하고오십명격구  
 위를거느려니르거늘상이또흔응복을코초시고격구장에느려천히치마하시니동홍  
 이등즈를굴너물을노아장상으로드러가며취구를공중에던진대상이쌍방을들으시  
 며동치셔돌하야동홍과서로취구를밧아공중에분분하니벽히쌍룡이여의쥬를어루  
 는듯반일을구치하야불분승부하더니동홍이홀연슈단을내야몸을소스며쌍방을밧  
 렬이치니그귀공중에별코치을나가는지라상이물을노아밧고저하시다가취귀싸에  
 써러지니동홍이격구의복을치며승전곡을알외거늘상이대쇼불열하시니양상세어  
 히업서심중에싱각하되동홍의무례함이더코흐니그죄를의론흔죽조밍덕의하던타  
 위에지지아닐지라내평성관운장이밍덕을버히지못함을흔하더니금일연하야희  
 룡하다가쥬허후류장의쥬령을호촉하리라하고던조쥬왕신이비록부지하오나동  
 어스를더덕하야금일지락을돕스오려니와신은만종이라군령으로헛코저하오니지

曹孟德 關雲長 劉章



는자는군룡로형함이도홀가하는이다상이대쇼허락하시니동홍이심중에대희왈제  
 비록무예절륜하나겨구슈단은싱소홀지라망녕되이군령을말하니내흔번이권후거  
 동을보리라하고쌍방을두루며장상에드니양상제미쇼하고응복을가져오라하여장  
 속을맛친후동홍드려왈나는본디쌍방을쓰지못하니갈로되신하리라동홍이허락하  
 며심중에대쇼왈칼이경하여취구를받지못하리라일합에랑패함을보리로다물을달  
 니며취구를공중에더지니양상제거짓피하는데하고칼로밧아동홍에게보내니홍이  
 크게소티하며쌍방을출추어공중에늘니다가진력하여흔번침애취귀반공에소사양  
 상셔압호로떠러지는지라상제또피신하여갈로밧아홍에게보내니홍이그겁함을보  
 고성의를내야평싱슈단으로쌍방을번개갓치두루며취구를동락하다가또진력하여  
 양상셔에게보내니상제홀연쌍검을번득이며취구를흔번침애취귀공중에빅여장을  
 솟는지라홍이당돌이밧고저하니양상제우으며칼을공중에더져취구를지레밧아또  
 수십장을솟거늘동홍이어히업서물을멈추고보더니상제또좌우의칼을공중에더져  
 취구를바드니또수십장을솟는지라상제이에쌍검을더지니쌍검이공중에출추어취  
 구를밧아반향을공중에서회룡하니동홍이망연조실하여물을잡고섯더니취귀홍의  
 마두에느러지며홍이슈각이황망하여밧쳐밧지못한지라양상제대쇼하고슈중의칼  
 을들여왈군중에희연이업는나라하더니동홍의머리싸에떠러지니좌위실석이라양  
 상제칼을더지고런조압하나야가복디주왈폐해춘취형성하시니만귀지가에쇼견하

실일이무궁하시거늘엇지천인을갓가이하샤옥례를손상하시며령문을히연케하시  
 리오동홍의방조함이군부를각승하여양양조득하시니츠습이점장하면란신적지정계  
 함을아지못할지라신이군령을비러간신을참하얏스니복원폐하는겨구위를파하샤  
 일월지명에그리움이업게하쇼샤상이옥석이참담하샤묵량구에왈짐이비록경의  
 충성을아나홍의죽음이유아지탄이라측연하도다상제다시주왈간신일을얻기샤  
 묘샤를아니싱각하시니그대쇼경중이엇다하리잇고상이텡파에던안이이연하샤왈  
 경은짐의동량이라츠후짐이다시이런과실이잇거든이갓치간하라상제황공돈슈하  
 고되쇼귀가하야부천씩고하니연왕이변석대경왕은지미거하야스군지례를비호지  
 못하야이갓치방조하도다네벼슬이정경에밧쳐거늘군부를되서잡기를헌충하니기  
 죄일애오식업지디에칼로사름을죽이니기죄이애오쇼인을죽이는법이반드시명정  
 기죄홀지니이제희룡을인연하여모호이버히니기죄삼애라내뵈불초하야교조를못  
 하얏스니성쥬비록용셔하시나엇지황공치아니리오즉시관복을갓초와겉외에되  
 하니상이대경하샤즉시인견하신대연왕이돈슈왕신이불충하와마거흔조식으로일  
 즉립조하와그무례함이지척지디에동홍을죽이오니신이드름에심담이전를하야부  
 지소운이로소이다상이손사왕이는다짐의허물이라경은과도이조인치말라연왕이  
 우주왈폐해비록장성의무난함을또흔징증하실지라제벼슬을데척하시고겨구위를  
 즉시파하쇼샤상이쇼왈겨구위는이제파하려니와장성의관직은장춧다하야그충성



을 표하고 저하노라 연왕이 지삼알외되던지 불령하시더라 차설 광음이 홀홀하야 연왕의 다 시입 조흔 지오 년이라 경성의 나히 십칠세라 두집이 텃일 성 혼홀시위의 의장함은 말하 지 말고 쇼저의 요도함이 초국군주에 지지 아니하니 연왕이 우흐로 양친을 밧들고 아래로 두조부를 거느려 싹개화락하고 복록이 창성하니 날마다 성만함을 근심하야 다 시던 원에도 라 감을 생각하더니 초시강서싸이 년홍하야 민심이 소동하고 란민이 모반하 니던 지 근심하야 태슈를 텃인코저하시나 사름마다 모피하느니라 양혹시 부친되고 왕고 언에 운하되 반근착절을 맞나지 아니면 리를 불변하느니라 쇼저 비록 불초하오 나련은 올망극히 님스와 도보홀싸이 업스오나 이 재강서 태슈를 조원하야 견마지성을 만분지일이 나갑스를 가하느니라 연왕왕의 지장 초엇지 다스리랴하느뇨 혹시 왕유능 제강고약 능승강이라 적조창성이 불승과 한하야 록림 황지에 상취 롱병하니 은덕으로 무홀하고 신의로 견부함이 올출가하느니라 연왕이 기용 칭찬하고 즉시 상소하느니라 지경성으로 강서 태슈를 제슈하신대 윤부인이 후스의 손을 잡고 탄왈네 나히 어리고 강서인심이 패악하니 내모의 의려하느니라 근심을 장 초엇지 위로코저하느뇨 혹시 텃일 충신형독경하면 만익지방이라 도가히 형하오리니 하물며 강세리 잇고 쇼저 불초하오나 스스 로 몸을 삼가 충효를 저버리지 아니하리이다 초시강서 태슈가 자마 다공 겁하야 괴구를 조초고 장스를 썰아 경상에 나른 죽갑스로 호위하고 백성을 립홀죽도적으 로다스리니 민심이 더욱 소동하느니라 양태슈 형장을 잔술이 하고 추종과 영후하느니라 괴를

다도라 보내고 몬져 일장 효유하느니라 글을 본군에 보내니 그 글에 왈

江西太守 人民等 傳 江西一邑 不幸 平日良民 無端 盜

劫 賊이 되니 엇지 본심이 리오 우흐로 부피주리고 아래로 처지리 산함애 승두를 희기하

야적류에 투입하고 구복을 관계하야 자최를 모물하니 이는 슈령의 뜻이라 내이 제황

命 命을 밧들어 일군을 다스리니 비록 쇼부두모의 조이 함이 업스나 포복입정하느니라 赤子

를 싱각하야 엇지 천연치아 나리오 위선근포하느니라 영갑을 거두고 체슈호도적을 방송

하야 태슈의 부임함을 기드리라 太守 赴任

양혹시 이문적을 몬져 반포하고 필마 단기로 창두이 인을 다리고 강서디경에 나르니 촌

락이 희쇼하고 계견이 적연흔디 곳곳이 무뢰빈성군장당하야 창검을 들고 립중애 미복

하야 형인을 겁탈하더니 신관이 나름을 듯고 스스로 죄법을 두려 둔 취작변코저하다가

반포홀글을 보고 구연이 서로하여 저태슈의 거동을 관망하더니 밧태슈 팔마 단기로 음

을 보고 막불경탄하야 대민은 참피하고 쇼민은 추회하느니라 태슈 부중에 나르러 일을

중호강흔십여인을 싸현승을 삼고 적당피슈빅여 명을 사학하야 관당에 불너 효유왈너

의 다빅성이라 불승과 한하야 망녕되이 죄에 범하니 성련저 태슈를 보내사 인의 효유

하야 능히 곳천죽대죄를 사하야 평민이 되야 타일실가지락을 누리려니와 만일 곳치

옥루몽권지수 예오십구회

一七九















孔夫子

老子、師襄、蓬伯仲、晏平

關里

濂、洛、關

孫明復

하야그밋음이제저에지내더라츠시인성의나히심스제라일일은부천의고왈공부지  
 철환던하하시니모르느자느제후를달너여구스하심이라하나기실은견문을널너도  
 덕을형하고저하심이라시고문례어로즈하시고문악어스양하시며거벽옥안평중  
 과교유하시니쇼지비록불초하오나제로지간에놀아선성유향을구경하고봉우강습  
 을구하야도덕문장을비호고저하느이다연왕이흔연허락하니인성이모천씩하직하  
 고일려일동으로쇼연출문하야바로산동짜에니르러컬리를차부즈묘에첨씩하고  
 강당에니르러향선성씩외오니향선성이인성의의상을봄에엄연진퇴함을보고놀나  
 더부러성리를강론하며후문을힐난하니인성이스리통달하고식견이동철하야의연  
 이럼락관민지풍이잇거늘선성이대경하야피석공슈왈군은나의스승이라로부에게  
 비할배아니라츠간에일위선성이잇서도혹이고명하니가봄이엇더하노인성이대회  
 왈어디게시니잇가선성왈대산아래손선성이니송나라손명복선성의취오삼십년안  
 벤락도하야불출산외하나스방후재구름거늘선성이더욱겸양하야스도로즈쳐함  
 이업고고궁독서하느니군은가보라인성이이에향선성을하직하고대산아래니르러  
 손선성을차즈니수잔과옥이불폐풍우하고문전에니름애현송지성이양양하거늘인  
 성이문을두드리니쇼동이와응문하느니라인성왈나는황성사름으로선성의고명  
 을듯고뵈옵고저왔스오니선성씩고하라쇼동이드러가량구에나와드러움을청하대  
 인성이초당에니르러보니흑벽과플자리에일장금과일권제노옛고손선성이폐의과

朱光庭

관으로슈면앙비하야진짓도혹근저오산야고인이라마져좌를당후에문왈슈지임  
 의황성에잇슨죽엇지유벽한산인을신근이찾느노인성이피석디왈쇼지성시에성장  
 하야견문이리속하고저좌로무하야후업이고루하니제로는본디근즈지향이대인  
 선성을조차널너비화평성의고루과문함을면할가하야옴이로소이다선성이숙시양  
 구에문왈슈지의성명이무엇이며년과몇치노인성왈성명은양인성이오천치는십스  
 세로소이다선성이기용왈로부는산중의오졸흔선비라무슴후업이잇서늬에게밋츠  
 리오마논이제슈지의얼골을봄에타일성취함을클지라로워엇지스도로즈쳐하리오  
 하고문장을강마하하며도덕을토론하니가위문일지십하고고왕지리라수월지간에도  
 후문장이일취일장하니선성의사랑함은니르지말고인성의공경함이더하더라츠시  
 선성에게일네잇스니도덕잇느스회를구하고저하더니일일은마춤용흔지라인성  
 드려문왈로워일네잇서비록황발후면이오비함이업스나내부의사랑함은모음이저  
 덕이더와긋흔자를엇어스회를삼고저하더니다만성각건대내집이현혁하야한미흔  
 나와결흔치아닐가하노라인성이디왈흔인은인륜대서라가풍의현불현을무를싸름  
 이니엇지빈부궁달을구애하리잇고선성이침음부답하더라인성이오래리축함으로  
 귀근하기를청하고하죽홀시선성이창연왈로워세간에출입이업느재라다시불과약  
 이업도다인성이저비왈쇼지한가흔때를다시문하에놀가하느이다선성이춤아씨  
 나지못하야죽장을집고동의수리를나와보내더라인성이도라오며탄왈석의쥬과당